서울청년센터 마포 · 청년 진로 · 3회차 / 전 3회

AI로 쓰는 내 진로 한 문장

세 번 · **3회차 — 확인하고, 지원한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두 시간

지난 두 시간 — 돌아보기

첫 시간 그림 · CT 메모(관찰) · 불편 메모(관심 포인트)

① 세 번 동안 할 일

② CT 메모

③ 불편 메모

④ 남긴 것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 시간에 본 그림 — 세 번 동안 할 일

세 번 동안 할 일 — AI로 내 진로 한 문장 쓰기

진로는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— 찾아보고, 뜯어보고, 고치는 것

오늘 · 나

찾아보고

CT 메모

내가 언제 살아있는지 적어서
『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』

경험 속 공통점을 찾아
'나의 방향 문장' 만들기

→

다음 시간 · 회사

뜯어보고

불편 메모

회사 · 산업이 내린 결정을
밖에서부터 역설계로 읽고
— 결과를 보고 거꾸로

관심 있는 회사를 살펴보고
진로 후보 3~5개로 좁히기

→

마지막 시간 · 길

고칩니다

답사 메모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 — 가서 확인하고
안 맞으면 — 고치는 법까지
— 여러 갈래의 시각으로

실제 업무를 확인하고
지원동기 문장까지 써보기

취업엔 증거 · 진로엔 기준 — 세 번 동안 둘 다 만듭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신청하며 적어 주신 고민 — 세 번에 나눠 답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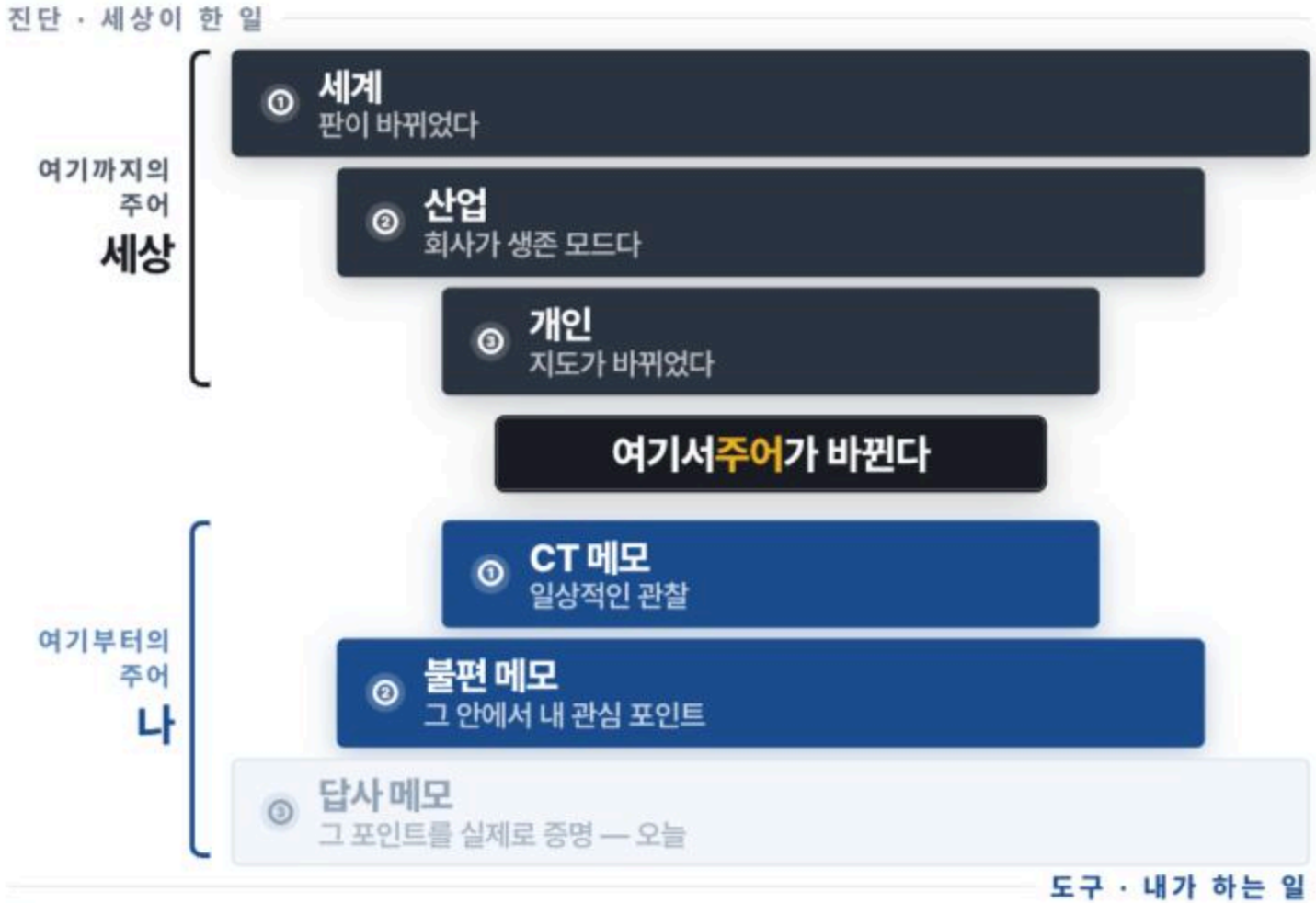
세 번 동안 — 진로와 취업에서 얻어 가는 것

적어 주신 고민	오늘 · 나 "뭘 할 수 있는지 · 뭐가 맞는지"	다음 시간 · 회사 "어떤 일 · 어떤 회사를 목표로"	마지막 시간 · 길 "자소서 · 포폴 · 면접에서 할 말"
진로	**내 방향 한 문장** "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"	**진로 후보 3~5개** 무슨 일 · 어느 회사	**맞는지 확인하는 법** 안 맞으면 — 고치는 법까지
취업	**막힌 이유 — 숫자로** 성격 탓이 아니라 재료 문제	**회사의 속사정 읽기** 뿌리까지 — 면접 질문까지	**확인한 근거로 쓰기** 포트폴리오 · 지원 동기

세 번은 — 내 재료가 쌓이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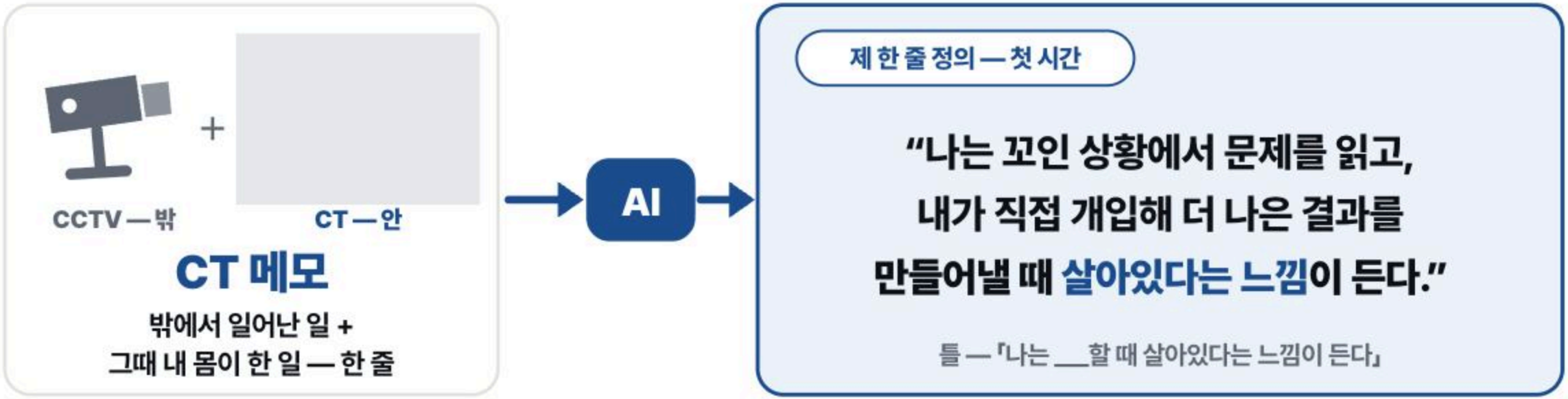
첫 시간 그림 — 다시

CT 메모 — 일상적인 관찰 · 불편 메모 — 그 안의 관심 포인트 오늘 답사 메모 — 그 포인트를 실제로 증명



지난 두 시간 돌아보기 — 1 / 2

첫 시간 — CT 메모로 만든 한 줄 정의



오늘은 — 이 문장을 **회사에 맞춰** 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 시간에 본 장면 — 상위 25% 다섯

메모를 한 번에 — 상위 25% 다섯

제 메모

하루 한 줄씩 — 쌓인 것

백 줄 넘게

나를 제일 잘 드러내는 기록

→ AI →

상위 25%짜리 강점 — 뭐가 겹치나?

1. **현장 관찰력** — 엉킨 상황의 실체를 먼저 읽는다 — 상위 25%
2. **구조로 묶기** — 흩어진 걸 반복되는 틀로 — 상위 25%
3. **수출 실무 10년** — 서류 · 절차 · 이해관계가 얽힌 현장 — 상위 25%
4. **AI를 빨리 내 것으로** — 몇 주 걸릴 정리를 며칠로 — 상위 25%
5. **끝까지 버팀** — 안 풀린 주 다음엔 다시 — 상위 25%

다섯을 겹치면 — 꼬인 상황을 푸는 사람 · 『더 시스템』은 셋, 저는 다섯

"나는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, 내가 직접 개입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"

이 문장으로 지난 시간 — 무슨 일이 나왔죠: **기획 · PD · 컨설턴트**

첫 시간에 만든 — 한 줄 정의

그 사이 뜸했던 분도 — 정상입니다

예 — 제 한 줄 정의 첫 시간에 만든 것

> "나는 꼬인 상황에서 문제를 읽고, 내가 직접 개입해
>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."

이 한 문장이 오늘 —
『왜 여기인가』에 들어갑니다

지난 두 시간

첫 시간 정리 — 방금 본 것

CT 메모	**일상적인 관찰** — 밖에서 일어난 일 + 몸의 반응
매주 넣으면	**상위 25% 다섯** → 겹치니까 한 줄 정의
오늘	**한 줄 정의** 하나 — 그대로 씁니다

핵심은 하나 — 나를 적어 둔 재료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두 시간 돌아보기 — 2 / 2

지난 시간 — 불편 메모로 남긴 진로 후보

불편 메모

🔍왜? → 네 갈래로 — 회사가 보인다

🔨나라면? → 할 일이 보인다

→

📝 내 메모장 — 진로 후보 3~5개

①	무슨 일	· 어느 회사	
②	무슨 일	· 어느 회사	⭐오늘 확인
③	무슨 일	· 어느 회사	
④	무슨 일	· 어느 회사	(있으면)

다 못 채웠어도 됩니다 — 오늘은 한 곳만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핵심 — 1 / 3

불편 ① — 「왜 이렇게 됐을까?」

밖에서 오는 불편



과자 값은 그대로인데 양이 줄었다

내가 고른 게 아닌데 — 나한테 오는 불편

「왜 이렇게 됐을까?」 — 물음 넷

1. **누구를 위해**
   누가 편해지고 · 누가 불편해졌나
2. **무엇을 포기**
   뭘 얻으려고 · 뭘 버렸나
3. **돈과 공간**
   돈 · 공간 · 사람을 어디에 몰았나
4. **어디서 돌아오나**
   어떤 길로 돈이 되어 돌아오나

적을 땐 — 둘로

확인한 것
양이 줄었다
— 그대로 씁니다

확인할 것
값을 지키려고 그랬다
— 아직 짐작 · 짐작이라고 적어 둔다

회사(이유)가 보인다 — 짐작은 「확인할 것」으로 적어 둔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핵심 — 2 / 3

불편 ② — 「나라면 어떻게 풀까?」

역설계 — 「왜 이렇게 됐을까?」

결과 → 거꾸로 → 이유

예 — 키오스크를 왜 늘렸을까

회사(이유)가 보인다

재설계 — 「나라면 어떻게 풀까?」

읽은 이유 + 내 불편 → 다시 짓기

코딩을 몰라서 — AI한테 말로 시켰다

할 일이 보인다

제가 만든 것 여덟 — 이 강의 화면 · 여행 매거진
홈페이지 · CT 메모 관리 · CBM 계산기 · 상세페이지 …

여러분 것



「나라면 이렇게 풀겠다」 한 줄

만들 수 있을지는 — 몰라도 됩니다

풀면 — 할 일이 보인다 · 그 한 줄도 오늘 씁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핵심 — 3 / 3

한 줄 정의 + 불편 → 진로 후보

1



한 줄 정의 → AI

「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」

무슨 일 셋 · 일마다 회사 셋

2



남기는 기준 둘

내 강점을 — 이 일에서 쓸 수 있나

내 불편을 — 이 일에서 풀 수 있나

3



3~5개 · 별표 한 곳

한 줄 = 무슨 일 · 어느 회사

제일 궁금한 한 곳에 ★

4



한 곳 거꾸로 읽기

네 갈래로 짐작 →

확인한 것 하나 · 확인할 것 하나

메모장에 남긴 것 — 후보 3~5개 · ★ 한 곳 · 확인한 것 · 확인할 것 · 오늘 그대로 씁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두 시간

지난 두 시간 정리 — 방금 본 것

첫 시간	**CT 메모** — 일상적인 관찰 → 한 줄 정의
지난 시간	**불편 메모** — 관심 포인트 → 진로 후보 3~5개
오늘	**답사 메모** — 실제로 증명 → 후보 한 곳

관찰 → 관심 포인트 → 오늘은 실제로 증명해 보는 차례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오늘

답사 메모 — 왜 답사인가

모험? · 답사란 · 아직 못 한 것 · AI 답 VS 답사 · 적는 틀

① 모험?
② 답사란
③ 아직 못 한 것
④ AI 답 VS 답사
⑤ 적는 틀
⑥ 손에 남는 것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답사가 — 뭐라고 생각하세요?

답사 — 무슨 답, 무슨 사?

답사

踏 查 = 밟아 가서, 직접 본다

밟다 · 답 조사하다 · 사

사전 — 「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함」

field survey · 현장 조사

모험

冒 險 =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

무릅쓰다 · 모 험하다 · 험

사전 — 「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」

adventure ← 라틴어 「다가올 일」

둘 다 — 가서, 직접 · 답사는 그 위험을 미리 밟아 보는 쪽 — 쌓일수록 모험은 안전해집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노르웨이 아문센 탐험대 — 모험은 어떻게 성공했나

1911년 남극점 — 미리 밟아 둔 만큼



로알 아문센(노르웨이) · 1912년

1911년 2 ~ 3월	보급소 셋 — 남위 80 · 81 · 82도 · 3.4톤	미리 밟아 뒀다
1911년 겨울	썰매 3분의 1 깎음 · 이누이트 옷 본뜸	미리 시험했다 · 배웠다
1911년 10월 19일	출발 — 다섯 명 · 썰매 넷 · 개 52마리	
1911년 12월 14일	남극점 — 사람이 처음	
1912년 1월 25일	돌아옴 — 99일 · 개 11마리	
영국 스콧 탐험대	1912년 1월 17일 남극점 — 34일 늦게 · 3월 29일까지 전원 사망	

출처 — 영문 위키백과 「Amundsen's South Pole expedition」 · 10-15 대조

모험의 성공 = 미리 밟아 본 양 — 그게 답사입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배 타고 비행기 타고 — 떠나는 게 아니라

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험 — 그게 답사

짐작 → 가서 확인 → 한 줄 — 오늘은 회사와 진로에

	짐작 가기 전	가서 확인 가서 보니	한 줄 그래서
☕ 새로 생긴 카페	리뷰를 보고	가 본다	『생각보다 별로』
🏠 집 구할 때	지도 · 사진을 보고	동네를 걸어 본다	『밤길이 어둡다』
💼 관심 가는 일	『나한테 맞을까?』	그 일 하는 사람의 하루를 보고 · 하루 해 본다	『밖에 있는 시간이 길다』

아문센도 이 셋 · 여러분도 매일 이 셋 · 오늘 답사 메모도 이 셋 — 가기 전 짐작 · 가서 보니 · 그래서 한 줄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답사가 뭐냐면 — 무엇 · 왜 · 하면

답사란 — 관심 포인트를 실제로 증명해 보는 것

❓ 무엇

실제로 확인

① 직접 ② 간접 ③ 나에게로

🎯 왜

진짜 맞나?

진로 — 이 방향이 맞나?
취업 — 이 회사가 맞나? · 아직 확인 전

🎁 하면

나만의 근거

날짜 · 장소가 붙은

포트폴리오 지원 동기 면접

답사 = 관심 포인트를 실제로 증명해 보는 것 — 확인한 건 내 근거가 됩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끝에 한 말

후보 한 줄 — 진짜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

⭐ 지난 시간에 고른 한 줄

진로 — 방향 · 산업 · 분야

무슨 일

어느 회사

? 「확인할 것」 — 아직 그대로

오늘 할 일 — 확인하고, 씁니다

1 확인 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

2 쓰기 「왜 여기인가」 두 문장

새 후보는 찾지 않습니다 — 고른 한 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먼저 — 보통은 이렇게 하죠

AI한테 — «○○회사 알아봐 줘»

내가 묻는다

○○회사에 대해 알아봐 줘

AI

AI 답 — 이런 꼴로 나옵니다 예시

①	회사 개요	설립 · 본사 · 직원 수
②	주요 사업	무엇을 파나
③	최근 실적	매출 · 이익
④	강점과 과제	경쟁 · 시장
⑤	인재상 · 채용	도전 · 협업 …

다 맞는 말 — 그런데 **누가 물어도 거의 같은 답**입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거랑 답사는 — 뭐가 다른가

AI 기본 답변 VS 답사

	🤖 AI 기본 답변	👣 답사
출처	**회사가 밖에 낸 자료** 보도 자료 · IR 자료(투자자용) · 소개문	**내가 가서 본 것** 직접 들은 것
누구의 답	**거의 같은 답** 누가 물어도	**나만의 결론** 내 추측을 직접 확인한 것
근거	**회사가 한 말 그대로** 언제 기준인지 모름	**확인한 것** 날짜 · 장소가 붙음
쓰는 곳	**출발점** 그대로 쓰면 — 흔한 문장	**포트폴리오** 지원 동기 문단 재료

※ AI가 잘못 알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면 — 출처는 대개 이 셋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메모가 이제 셋 — 오늘은 3단계

메모 셋 — 쉬운 것부터 한 단계씩

1단계 · 첫 시간

CT 메모

주인공 — 몸

감정은 한마디면 충분 — 몸이 한 것

15초 · 제일 쉬운 워밍업

2단계 · 지난 시간

불편 메모

주인공 — 불편

불편한 감정을 붙잡아 그대로

+ 『그래서?』 한 줄

3단계 · 오늘

답사 메모

주인공 — 짐작과 실제

가서 보고 · 읽고 · 묻고

손이 제일 많이 간다

쉬운 것부터 한 단계씩 — 그래서 노트도 따로 적습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가서 본 것은 — 이 셋만

답사 메모 — 물음 셋

📅날짜 · 📍장소 — 맨 위에 한 줄

1

💭

가기 전 — 내 짐작

지난 시간 「확인할 것」 한 줄

2 ★ 제일 중요

🔍

가서 보니 — 실제는

짐작과 다른 것 하나

3

✍️

그래서 — 한 줄

내 결론 — 한 줄

나머지 칸(장면 · 바뀐 지점 · 지나친 것 · 그날 내 상태)은 — 답사 메모 명령어를 붙이면 — AI가 하나씩 물어봅니다

조금 뒤 — 봉화도 이 셋으로 짚어 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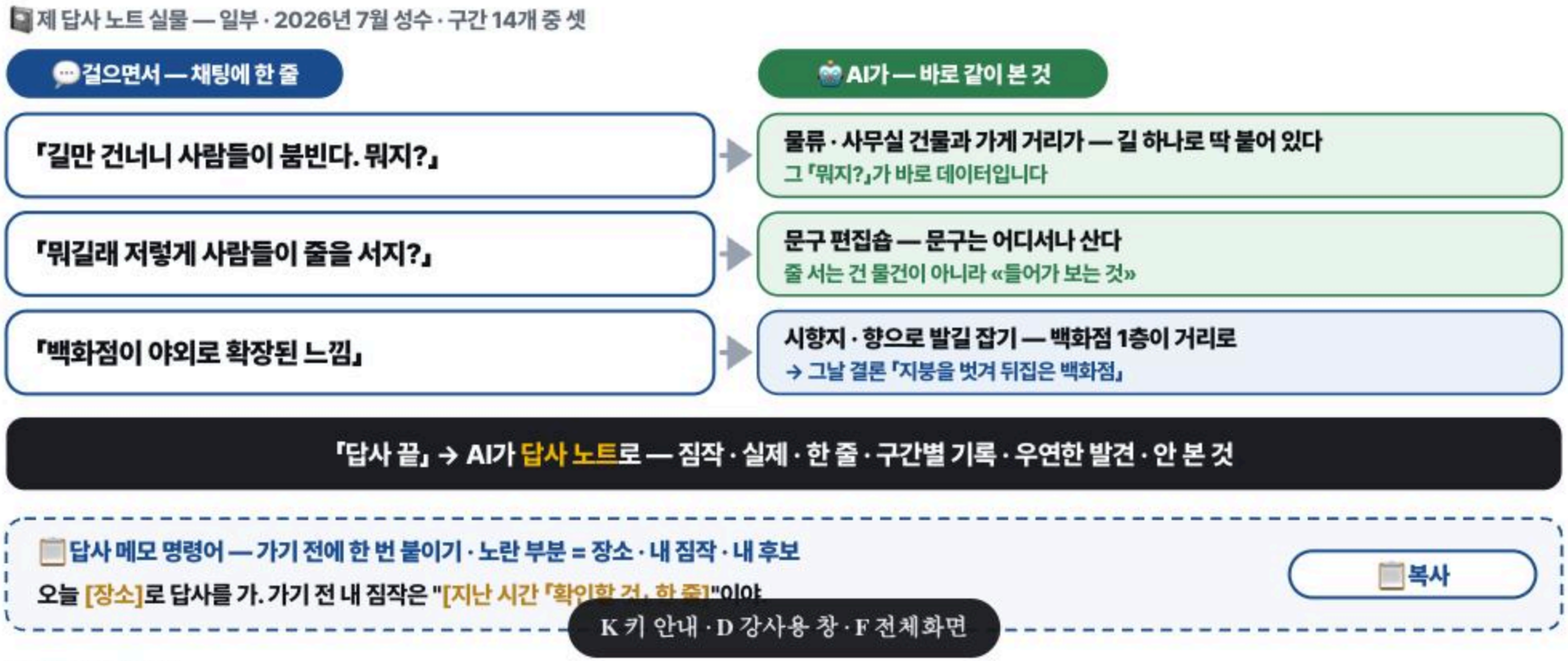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제 답사 노트 — 이렇게 모입니다

걸으면서 한 줄씩 — 「답사 끝」 하면 노트로

한 줄씩 적고 AI와 같이 보면 — 답사가 인사이트가 됩니다



가서든 앉아서든 — 틀은 같습니다

그 자리에서 · 다녀와서 · 나중에

① 그 자리에서

어디서 · 본 것 · 「어?」만

다 채우려 하면 — 답사가 멈춥니다

앉아서(공고 · 영상)도 — 물음 셋 그대로

② 다녀와서

「답사 끝」이라고 보내기

AI가 — 답사 노트로 정리합니다

확인한 것 · 확인할 것으로 — 갈라 줍니다

③ 나중에 다시



「그때 왜 그랬지」 한 줄

그때 안 보이던 게 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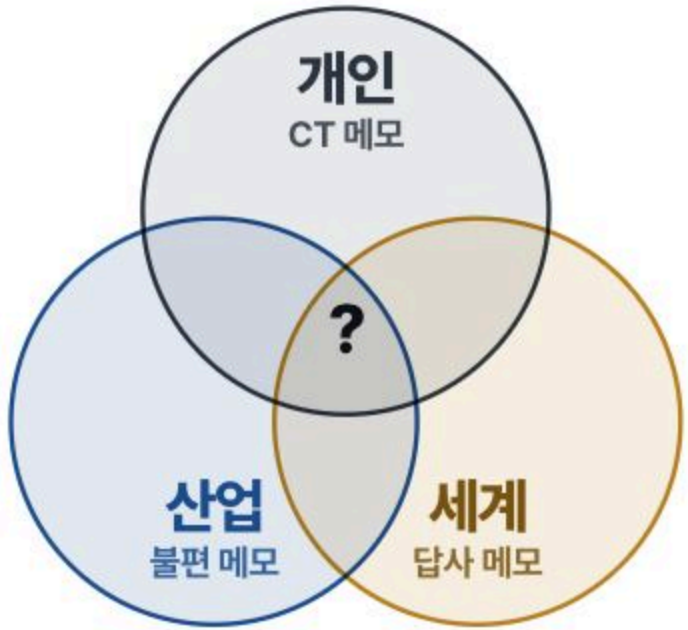
나중에 보입니다

CT · 불편 · 답사 메모 — 셋 다 여러분과 AI만 봅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 시간에 보여드린 원 세 개



- **개인** 내가 몰입하는 조건
- **산업** 그 일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
- **세계**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

첫 시간에 개인 · 지난 시간에 산업 — 오늘 세계를 채우고 셋을 겹칩니다

겹치는 자리 = ?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 물음표는 끝에서 — 오늘 손에 남는 것부터

오늘 손에 들고 갈 것 — 넷

1



답사하는 법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

2



포트폴리오 만드는 순서

일곱 칸 — 오늘은 ①관찰 · ⑦한계

3



지원 동기 문단

「왜 여기인가」 두 문장

4



석 달 뒤 셀프 점검표

스스로 여는 종이 — 날짜부터

이 넷으로 쓰는 곳 — 자소서 · 지원 동기 · 포트폴리오 · 면접 답 · AI 써 본 경험까지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세 분 — 오늘도

이런 분께 — 특히 도움이 됩니다

진로



후보 한 줄은 골랐는데
맞는지는 모르는 분

다시 시작



쉬는 기간이 길어서
서류에 쓸 게 없다는 분

경험



해 온 일을
다음 일로 잇고 싶은 분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끝에 예고한 대로 —

마지막 시간엔 — 이 셋을 합니다

세션 1



답사

진로 후보 한 곳 — 맞는지 확인하러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

세션 2



서류

확인한 것을 — 포트폴리오 · 자소서로

「왜 여기인가」 — 두 문장

세션 3



고치는 법

안 됐을 때 — 고쳐도 됩니다

정하는 법에서 끝나지 않고 — 고치는 법까지

지난 시간에 남긴 진로 후보 — 오늘 이렇게 씁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지난 두 번 동안 밖에서 읽은 걸로

오늘의 순서

5가지

01 **지난 시간** — 지난 두 시간 — CT 메모 · 불편 메모
오늘 셋째 도구 — 답사 메모

02 **세 도구** — CT → 불편 → 답사 — 문장이 하나
예 하나 — 봉화사과

03 **답사** — 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
후보 한 줄 — 맞는지 확인

04 **서류** — 포트폴리오 — ①관찰 · ⑦한계
「왜 여기인가」 두 문장

05 **고치는 법** — 안 됐을 때 — 규칙 둘
석 달 뒤 셀프 점검표

새 후보는 찾지 않습니다 — **고른 한 곳**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1

세 도구의 순서

따로 배웠습니다 — 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· 결과물도 세 메모로 — 봉화

① 순서

② 되돌아가기

③ 봉화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CT · 불편 — 그리고 오늘 답사

세 도구 — 하나씩 따로 배웠습니다



따로 배웠지만 — 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기본은 — 이 순서입니다

개인

CT 메모

나

산업

불편 메모

내 앞의 것

세계

답사 메모

실제 현실



한 문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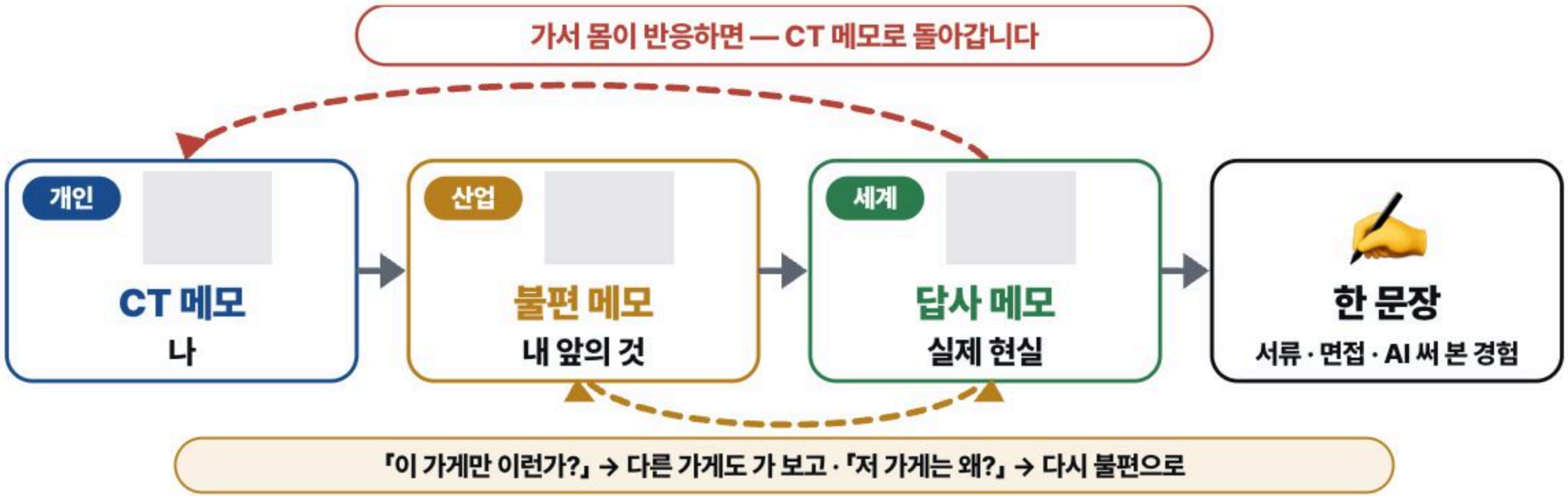
서류 · 면접 · AI 써 본 경험

나를 찍고 → 내 앞의 것을 찍고 → **실제로 확인하면** 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런데 — 실제로는 이렇게 굴러갑니다

순서는 있는데 — 한 방향은 아닙니다

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 불편 메모 예 — 그 향수 매장

향수 매장에서 — 순서가 반대였습니다

순서는 있지만 — 한 방향은 아닙니다 · 셋이 다 모이면 됩니다

지난 시간 불편 메모 예 — 그 향수 매장 · 그날 일어난 순서대로

1 · 답사



매장에 먼저 들어갔다

가서 — 실제로

2 · CT



코가 아려 — 5분 만에 나왔다

몸이 한 일

3 · 불편



나와서 — «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»

걸린 것 — 물음

기본 순서는 CT → 불편 → 답사 — 그날은 답사 → CT → 불편

K 키 안내 · D 강사용 창 · F 전체화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래서 — 셋이 모이면

문장이 하나 나옵니다

CT 메모 "저는 이런 사람이고, — 진로 — 어느 방향

불편 메모 이 방향(산업 · 분야)은 — 이런 불편을 풀고 있으며,

답사 메모 제 짐작은 이랬는데 — 그 일의 하루를 보니 실제는 이렇더라,

그래서 — 이 방향으로,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."

세 개가 다 있어야 이 문장이 나옵니다 — 셋째 줄은 가 본 사람만 씁니다

그런데 — 지원 문장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

세 메모로 보면 — 결과물이 «어떻게 나왔나»

결과물 하나를 — 세 메모로 나눠 보면

CT 메모
무엇에 —
반응했나

불편 메모
무엇이 —
걸렸나

답사 메모
무엇을 —
확인했나

어느 쪽 결과물이든 — 이 셋으로 «어떻게 나왔나»가 정리됩니다

📣 홍보 | 🧭 의사결정 | ...

예 하나 — **홍보** · 뉴욕 한복판의 봉화사과 광고

예 하나 — 홍보

뉴욕 한복판에 — 봉화사과 광고가 걸렸습니다



뉴욕 타임스스퀘어 · 2026년 8월

「봉화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」

거꾸로 짚을 물음 — 둘

🗽 ① 왜 하필 — 뉴욕인가?

💬 ② 왜 하필 — 이 문구인가?

✔ 사실 — 봉화군 홍보 담당 주무관 · 사비 32만 9천 원 · 24시간 · 36분마다 15초 · 본인 SNS 결제 인증

✔ 반응(보도) — 결제 인증 게시물 · 하루 만에 조회수 5만 건 · 좋아요 7천 개 넘음

출처 2026년 8월 보도 종합(한국경제 · 한국일보 · 파이낸셜뉴스 · 세계일보 · 브랜드브리프 · 경북도민일보) · 사진 = 인스타 @bongsoongi

결과만 보면 갑자기지만 — 담당자 자리에서

① CT 메모 — 담당자는 무엇에 반응했을까

→ 제 짐작 담당자 자리에서 적어본 메모 · 본인만 아는 것	① CT 메모 무엇에 반응했나	② 불편 메모 무엇이 걸렸나	③ 답사 메모 무엇을 확인했나
왜 하필 — 뉴욕?	담당자가 올린 봉화군 홍보 영상 — 조회수를 세 번 다시 봤다 다른 지자체 영상이 크게 나온 건 — 끝까지, 또 봤다 자기가 만든 건 안 보고 — 남의 것이 크게 나온 건 끝까지 본다	? 크게 나온 영상은 하나같이 — 「지자체답지 않은 것」 「특산물 홍보는 이렇게」 — 누가 정했지? 봉화 건 왜 — 지자체다워야 하지?	짐작 — 사과를 제일 안 어울리는 데 놓으면? 확인 — ✓ 본인 말 · 미국용 광고 아님 뉴욕에 떴다는 화재를 국내에서 그래서 — 뉴욕
왜 하필 — 이 문구?	'광고' 두 글자가 보이는 글은 — 손가락이 먼저 넘겼다 「이거 진짜야?」 싶은 글은 — 캡처해 동료에게 보냈다 광고는 넘기고 — «진짜야?» 싶은 글은 보낸다	'광고'라고 하면 — 아무도 안 본다 「광고는 이렇게」 — 누가 정했지? 광고는 왜 꼭 — «사세요»라고 해야 하지?	짐작 — '광고'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본다 확인(제 짐작) — 잘 퍼진 글은 첫 줄에서 «진짜야?» 하고 멈추게 한다 그래서 — «광고 안 합니다»

CT — 「속상했다」가 아니라 몸이 한 일

패턴이 보이면 — 물음이 생깁니다

② 불편 메모 — 담당자는 무엇이 걸렸을까

→ 제 짐작 담당자 자리에서 적어본 메모 · 본인만 아는 것	① CT 메모 무엇에 반응했나	② 불편 메모 무엇이 걸렸나	③ 답사 메모 무엇을 확인했나
왜 하필 — 뉴욕?	담당자가 올린 봉화군 홍보 영상 — 조회수를 세 번 다시 봤다 다른 지자체 영상이 크게 나온 건 — 끝까지, 또 봤다 자기가 만든 건 안 보고 — 남의 것이 크게 나온 건 끝까지 본다	❓ 크게 나온 영상은 하나같이 — 「지자체답지 않은 것」 🤔 「특산물 홍보는 이렇게」 — 누가 정했지? 봉화 건 왜 — 지자체다워야 하지?	짐작 — 사과를 제일 안 어울리는 데 놓으면? 확인 — ✓ 본인 말 · 미국용 광고 아님 뉴욕에 떴다는 화제를 국내에서 그래서 — 뉴욕
왜 하필 — 이 문구?	'광고' 두 글자가 보이는 글은 — 손가락이 먼저 넘겼다 「이거 진짜야?」 싶은 글은 — 캡처해 동료에게 보냈다 광고는 넘기고 — «진짜야?» 싶은 글은 보낸다	'광고'라고 하면 — 아무도 안 본다 🤔 「광고는 이렇게」 — 누가 정했지? 광고는 왜 꼭 — «사세요»라고 해야 하지?	짐작 — '광고'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본다 확인(제 짐작) — 잘 퍼진 글은 첫 줄에서 «진짜야?» 하고 멈추게 한다 그래서 — «광고 안 합니다»

✓ 본인 말 — «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봉화사과를 알아주지 않는다»

걸린 자리를 — 실제로 확인합니다

③ 답사 메모 — 담당자는 무엇을 확인했을까

→ 제 짐작 담당자 자리에서 직접 본 메모 · 본인만 아는 것	① CT 메모 무엇에 반응했나	② 불편 메모 무엇이 걸렸나	③ 답사 메모 무엇을 확인했나
왜 하필 — 뉴욕?	담당자가 올린 봉화군 홍보 영상 — 조회수를 세 번 다시 봤다 다른 지자체 영상이 크게 나온 건 — 끝까지, 또 봤다 자기가 만든 건 안 보고 — 남의 것이 크게 나온 건 끝까지 본다	❓ 크게 나온 영상은 하나같이 — 『지자체답지 않은 것』 🤔 『특산물 홍보는 이렇게』 — 누가 정했지? 봉화 건 왜 — 지자체다워야 하지?	💭 짐작 — 사과를 제일 안 어울리는 데 놓으면? 🔍 확인 — ✓ 본인 말 · 미국용 광고 아님 뉴욕에 떴다는 화제를 국내에서 그래서 — 뉴욕
왜 하필 — 이 문구?	👆 '광고' 두 글자가 보이는 글은 — 손가락이 먼저 넘겼다 📸 『이거 진짜야?』 싶은 글은 — 캡처해 동료에게 보냈다 광고는 넘기고 — «진짜야?» 싶은 글은 보낸다	🙈 '광고'라고 하면 — 아무도 안 본다 🤔 『광고는 이렇게』 — 누가 정했지? 광고는 왜 꼭 — «사세요»라고 해야 하지?	💭 짐작 — '광고'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본다 🔍 확인(제 짐작) — 잘 퍼진 글은 첫 줄에서 «진짜야?» 하고 멈추게 한다 그래서 — «광고 안 합니다»

짐작을 실제로 확인했다 — 그래서 뉴욕, 그래서 이 문구

하나만 짚고 갑니다

남의 일은 짐작 — 내 일은 본 것부터

🗽 봉화 — 남의 일

결과(뉴욕 광고)에서 —
거꾸로 짚었습니다

담당자 메모는 — 본 적이 없습니다

→ 전부 제 짐작
확인된 건 — 본인 말 한 줄

vs

🙋 여러분 — 내 일

내 메모에서 —
앞으로 갑니다

내가 겪고 본 것은 — 확인한 것

짐작은 — 확인할 것으로 따로
지난 시간에 한 그대로

그래서 여러분 문장은 — 남의 짐작이 아니라 «내가 본 것»에서 시작합니다

세션 1 · 파트 1

순서 정리 — 방금 본 것

기본 순서	CT → 불편 → 답사 — 나부터 찍고
한 방향인가	아니다. 필요하면 되돌아간다
봉화(홍보)	결과물도 세 메모로 — 남의 일은 짐작

외울 것은 셋이 아니라 — 「나부터」

세션 1 파트 2

답사는 — 세 갈래

갈 수 있으면 직접 · 못 가면 간접 — 마지막은 나에게로

1
직접
갈 수 있으면 — 가서 본다

2
간접
못 가면 — 읽고 · 보고 · 묻는다

3
나에게로
모은 걸 — 나한테 비춰 본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2

① 직접 답사

갈 수 있는 곳 — 내 몸으로 가서 본다

① 직접

② 간접

③ 나에게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먼저 나눕니다 — 갈 수 있느냐, 없느냐

갈 수 있는 곳 · 못 가는 곳

👣 갈 수 있는 곳

매장 · 상권 · 행사
제품 · 서비스

내 눈 · 내 발 · 내 손으로

① 직접 답사

🚪 못 가는 곳

회사 회의실 · 공장 안
산업 전체의 흐름 · 남의 하루

읽고 · 보고 · 묻는다

② 간접 답사

갈 수 있으면 — 직접 · 못 가면 — 간접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갈 수 있는 곳이면 — 내 몸으로

① 직접 답사 — 오감으로

👣 가서 볼 수 있는 것

- 🏙️ 상권
- 🏠 부동산
- 🏬 매장
- 🛎️ 서비스
- 📦 제품
- 🎪 행사 — 팝업 · 공연 · 콘서트

🖐 오감으로

- 👀 눈으로 보고
- 👃 코로 맡고
- ✋ 손으로 만지고
- 👂 귀로 듣고
- 👅 먹고 맛보고

직접 답사는 — 바로 포트폴리오 재료가 됩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제가 한 직접 답사 — 성수

가서 본 것이 — 포트폴리오 한 장면



메모



가서 본 것이 — 그대로 포트폴리오 한 장면

직접 · 산업 현장

못 들어가는 곳이면 — 프로그램 · 전시회로

🚫 혼자는 못 들어가는 곳

조선소 · 정유 공장

↓

🏫 학교 · 기관 프로그램으로

대학 취업센터 — 졸업생 · 다른 학교도

정부 일경험 — 회사를 찾아가 보는 과정

🎪 누구나 가는 곳

업계 전시회 — 사전 등록하면 무료인 곳이 많다

기업 전시관 — 예약하면 무료인 곳도

(공장은 아닙니다)

가기 전에 — 간접 답사부터 해 두면 볼 게 생깁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직접 · 해 보기 — 막연하면 셋 중 하나

일경험 · 산업부터 · 찾아가 묻기

1



정부 일경험

인턴형 · 프로젝트형 —
회사를 찾아가 보는 과정

만 15~34세 · 일 안 하고 있는 청년

청년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

2



못 들어가는 큰 산업

누구나 같은 출발선 —
산업부터 읽고 → 회사 · 일로

읽는 법은 — 바로 뒤 간접 답사에서

3



작은 회사

얼굴에 철판 깔고 — 찾아가 묻기
업계 1등부터 메일 → 안 되면 다음

물을 질문 셋은 — 조금 뒤에

막연하면 — 큰 산업은 읽고 내려오고 · 작은 회사는 찾아가 묻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· 파트 2

직접 답사 정리 — 방금 본 것

갈 수 있으면	내 몸으로 — 보고 · 맡고 · 만지고 · 듣고 · 맛보고
가서 본 것	그대로 포트폴리오 재료 — 제 성수 답사처럼
못 들어가는 현장	학교 · 기관 프로그램 · 업계 전시회로
막연하면	일경험 · 큰 산업은 읽고 내려오기 · 작은 회사는 찾아가 묻기

갈 수 있으면 — 내 몸으로 가서 본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2

② 간접 답사

못 가는 곳 — 읽고 → 보고 → 묻고 → 마지막에 내 후보 공고

① 직접

② 간접

③ 나에게로

간접 — 못 가는 곳은

② 간접 답사 — 읽고 · 보고 · 묻는다

혼자 하는 것부터 → 사람에게 → 마지막엔 내 후보 공고

① 읽기

혼자 · 앉아서



리포트 · 사업보고서
기사 · 직업 정보

산업 → 회사 → 일

→

② 보기

혼자 · 앉아서



영상 서너 개
그 일의 하루

말이 아니라 화면

→

③ 묻기

사람에게



선배 → 커뮤니티
→ 회사에 직접

쉬운 것 → 어려운 것

→

④ 마지막

내 후보로



후보 한 곳의 공고
지금 같이 한 번

→ 확인 결과 한 장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간접 · 읽기 — 리포트 백 개

애널리스트 리포트 백 개 → AI로 분석



간접 · 읽기 — 회사가 내는 보고서

사업보고서 — 회사가 쓴 우리 산업 이야기

📄 사업보고서

「사업의 내용」

- 산업의 특성
- 수요가 바뀌는 이유
- 경쟁 상황

✔ 상장된 회사면 — 다 있다

무료 · 로그인 없이 검색 · 해마다 회사가 나라에 낸다

✖ 작은 비상장 회사는 — 대개 없음

회사가 직접 쓴 — 우리 산업 이야기

📋 사업보고서 명령어 — 복사해서 단톡방에 · 노란 부분 = 회사 이름

[회사 이름]의 가장 최근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(DART)에서 찾아서 「II. 사업의 내용」을 읽고 정리해 줘 —

📋 복사

간접 · 읽기 — 기사 계속 모으기

산업 읽기 세션 — AI가 기사를 모아 준다

1



대화방 하나 — 산업 · 내 후보만

아래 명령어 — 처음 한 번

2



AI가 최근 기사 — 10개쯤, 최근 순으로

무슨 일 · 산업에 · 내 후보에

3



다음엔 「갱신」 — 새 기사만 더하기

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

하루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— 석 달이면 그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

산업 읽기 명령어 — 처음 한 번만 · 노란 부분 = 산업 · 내 후보

이 대화방은 [산업 이름] 산업을 읽는 방이야. 내 진로 후보는 [후보 회사 · 직무]야.

복사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간접 · 읽기 — 직업 정보

직업 정보도 — AI가 찾아서 알려 줍니다

1



직업 이름만 — 명령어에

그 직업이 실제로 하는 일
필요한 능력 · 가는 길

2



AI가 찾아서 — 자세히

나라 직업 정보부터 · 링크까지
어떤 회사에서 많이 뽑나까지

3



산업 읽기 대화방에 — 같이

날짜 붙여 쌓기
내 후보에 무슨 뜻 — 한 줄
짐작은 — 짐작이라고

찾는 건 AI가 — 직업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

직업 정보 명령어 — 복사해서 단톡방에 · 노란 부분 = 직업 · 내 후보

[직업 이름] 일에 대해 웹에서 찾아서 자세히 알려 줘 — 나라에서 정리한 직업 정보(고용24 같은 곳)부터 보고, 찾은 곳 링크를 줄마다 붙여 줘.

복사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간접 · 보기 — 영상

유튜브에서 — 그 일의 하루 영상 서너 개

1



찾기 — AI가 서너 개

명령어에 직무 · 산업 · 진로만

예 — 「영업관리」

2



정리 — AI가 표로

공통 · 한 영상만 · 한 일 vs 생각

몇 번 영상 · 몇 분쯤까지

3



확인 — 내 눈으로

표에 적힌 시간으로 가서

한두 개만 봅니다

AI가 못 읽은 영상만 — 내가 자막 붙이기

볼 건 말이 아니라 **화면** — 몇 시에 뭘 켜나 · 누구와 몇 번 · 혼자 앉은 시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다음 — 명령어에 그대로

영상 서너 개 → 명령어 하나로 겹치는 하루

💬명령어 — 아래 📋복사 ·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

[직무 · 산업 · 진로] 일을 하는 사람의
'하루 일과' 영상을 유튜브에서 3~4개 찾아 줘 — 최근 2년 안.
영상마다 제목 · 채널 · 링크. 그리고 표로 정리해 줘 —
① 여러 영상에 공통으로 나오는 일
② 한 영상에서만 나온 일
③ 실제로 한 일과, 그 사람 생각 · 의견을 나눠서
각 줄 옆에 (몇 번 영상 · 몇 분쯤). 영상에 있는 것만.
못 읽은 영상은 못 읽었다고 — 그건 내가 자막을 붙일게

📊이렇게 나옵니다 — 예

공통
아침마다 거래처 전화 [1번 · 앞 / 2번 · 3분쯤]

한 영상만
사내 행사 준비 [3번 · 뒤]

생각
「이 일이 제일 지겹다」 [2번 · 9분쯤]

하나만 보면 그 사람 사정 · 서너 개 겹치면 그 일의 하루

📋영상 명령어 — 복사해서 단톡방에 · 노란 부분 = 직무 · 산업 · 진로 📋복사

간접 · 묻기 — 선배한테

선배한테 묻기 — 질문 셋

"어제 하루에 제일 오래 한 일이 뭐였어요?"

"이 일에서 제일 지겨운 부분이 뭐예요?"

"들어오기 전엔 몰랐다가 들어와서 알게 된 게 뭐예요?"

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—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

셋 다 겪은 일을 묻습니다 — 답이 구체적으로 옵니다 · 「어떠세요?」 ×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선배가 없으면요?

아는 사람이 없어도 — 길은 셋

다 채우는 게 아닙니다 — 쉬운 것부터, 할 수 있는 데까지

1



업계 커뮤니티에 묻기

해 봤더니 — 제가 더 알고 있었다

→ 더 나올 게 없다 = 이것도 정보

2



현직자에게 묻는 사이트

무료로 질문할 수 있는 곳

단, 한 사람 얘기

3



그래도 없으면 — 비워 두기

사람이 생기면 그때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간접 · 묻기 — 회사에 직접 · 제일 어려운 방법

회사에 직접 — 투자자 담당 부서(IR)

📞 누가 받나	🙋 누구로 묻나	📚 묻기 전에
투자자 담당 부서 상장사면 대개 있습니다 연락처 — 공개돼 있음 전화 · 메일 · 문의 양식	**주주 · 투자자로** 취준생이라고 하면 — 끊기거나 기록이 남을 수도 마음에 걸리면 — 1주라도 그 회사가 담긴 펀드라도	**꽤 공부하고** 산업 · 사업 내용 · 지금 상황 앞에서 읽은 리포트 · 사업보고서 난이도 — 높은 편

답은 이미 공개한 것(공시)의 설명까지 · 발표 전 내용 × · 질문 대본은 AI가(명령어)

무슨 말로 물을지 — AI가 대본을

질문 대본 — 이렇게 나옵니다

📄 **읽은 것**
보고서 · 리포트에서

+

📋 **회사에 묻기 명령어**
강의 끝나고 단톡방에

→ AI →

질문 대본 — 예시

인사	○○ 주주입니다 — 사업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
질문 1	보고서의 ○○ 사업 비중 변화 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?
질문 2	새로 생긴 ○○ 부문 — 공시된 범위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?
마무리	어려우시면 — 참고할 공개 자료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?

인사는 주주 · 투자자로 · 질문은 이미 공개된 것에서만 · 못 들으면 공개 자료를 묻고 끝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간접 · 마지막 — 내 후보 한 곳의 공고

공고가 나오면 — 내 재료와 바로 엮습니다

재료를 모아 두면 — 공고가 뜨는 날 바로 엮습니다

📋 공고 — 하는 일 칸

회사 소개 · 인재상 말고

같은 직무 서너 개에

겹치는 문장

예

「거래처 발주 확인 · 재고 맞추기」

+

📝 모아 둔 내 재료

CT 메모 → 상위 25% 강점

불편 메모 → 해 본 경험 · 할 수 있는 것

답사 메모 → 방금 직접 · 간접에서 본 것

예

카페 — 매주 발주 · 재고 맞추기

→

🔗 바로 엮기

자기소개서 · 포트폴리오

공고 문장 ↔ 내 경험

나만의 강점으로

예

「카페에서 매주 발주 · 재고를 맞췄습니다」

예 — 카페에서 일하는 스물일곱 → 지역 식품 회사 · 영업 관리직

지난 시간 숙제 — 공고 명령어

공고 명령어 — 지금 같이 한 번

1



후보 한 곳 — 채용 페이지

지금 올라온 공고 — 전부 복사

작년 것은 안 찾아도 됩니다

2



공고 명령어 밑에 붙여넣기

보내면 — 끝

명령어는 — 아래 복사

3



이렇게 나옵니다

어느 일에 사람을 늘리나

새로 만드는 자리 · 몇 명

짐작은 — 짐작이라고

오늘은 하나만 — 어느 일에 사람을 늘리나 → 그 일이 내 재료와 닿나

공고 명령어 — 복사해서 단톡방에 · 노란 부분 = 회사 · 공고 전부 복사

회사 거꾸로 읽기 명령어 — 지난 시간 것 · 같은 회사로 비교 · 노란 부분 = 회사 · 궁금한 것 복사

확인 결과 한 장 — 이렇게 씁니다

비어 있어도 결과물 — «더 고려해 본다 · 아니다» 한 줄은 꼭

📌 카페에서 일하는 스물일곱 — 후보 지역 식품 회사 · 영업 관리직 예

✅ 확인한 것

10월 13일

공고 — 「거래처 발주 확인」
「재고 맞추기」가 두 번씩

영상 — 아침엔 거래처 전화
오후엔 차로 매장

내 메모 — 카페 발주 · 재고

? 아직 확인할 것

→ 다음에 물을 질문

하루 중 밖에 있는 시간은?

면허가 꼭 필요한가?

그 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것

↕️ 그래서 — 한 줄

이 직무를

✅ 더 고려해 본다

하는 일이 — 카페에서 해 본 일과 비슷하다

✋ 아니다

차로 다니는데 — 면허가 없다

세션 1 · 파트 2

간접 답사 정리 — 방금 본 것

① 읽기	리포트 → 사업보고서 → **산업 읽기 세션** → 직업 정보
② 보기	영상 서너 개 — **그 일의 하루**
③ 묻기	선배 → 아는 사람이 없어도 → **회사에 직접**
④ 마지막	내 후보 공고로 같이 → **확인 결과 한 장**

혼자 하는 것부터 → 사람에게 → 마지막엔 내 후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1 파트 2

③ 나에게로 떠나는 답사

밖에서 모은 것을 — 나한테 비춰 본다

① 직접

② 간접

③ 나에게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밖에서 확인한 걸 — 나한테 비춰 보면

나한테 묻는다 — 물음 다섯

① 직접 · 답사 메모	짐작과 달랐던 것 — 나는 끌렸나, 식었나	가서 보니 — 실제는
② 간접 · 영상의 하루	그 사람의 하루 — 나는 매일 할 수 있나	겹치는 하루 · 버거운 시간
③ 간접 · 공고	공고에 적힌 그 일 — 해 본 적 있나, 그때 어땠나	답은 — CT 메모에서
④ 간접 · 산업 읽기	이 산업이 가는 쪽 — 나는 거기 서고 싶나	리포트 · 산업 읽기
⑤ 간접 · 선배 · 회사	들은 말 중 마음에 걸린 한마디 — 왜 걸렸나	선배 질문 셋 · IR

답은 — 확인 결과 한 장 셋째 칸 · ✅ 더 고려해 본다 · 🖐 아니다

첫 시간 — AI는 막 출근한 비서였죠

흩어진 대화를 — 파일 하나로 모아서 묻습니다

💬 흩어진 대화 · 메모

대화방 — 진로 고민

대화방 — 자소서

대화방 — 회사 알아보기

CT 메모 | 불편 메모 | 답사 메모



파일 하나

전부 한 파일에 붙여 넣기

메모장 파일이면 됩니다

🤖 대화방 하나

— 파일을 넣고

"이 길, 나한테 맞아?"

→ 나를 아는 상대

파일 안에서만 답하라고 시킵니다

막 출근한 비서도 — **파일 하나를 주면 나를 알고 답합니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막막하면 — 이 셋 중 하나로

찬반 토론 · 면접관 · 10년 뒤의 나

1



찬반 토론

「맞다」·「아니다」로 나눠

끝에 — 가서 확인할 질문 셋

이 길이 맞나 — 헷갈릴 때

2

면접관

「왜 여기인가」를 캐묻는다

내 답이 메모와 다르면 — 짚는다

지원 동기 — 쓰기 전에

3



10년 뒤의 나

그 길을 걸은 나와 대화

재미로 — 지어낸 미래(근거 아님)

길이 — 멀게 느껴질 때

셋 다 — 근거는 그 파일에서만 · 없는 말은 «짐작» · 판정은 내가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제 파일로 — 지금 해 보겠습니다

찬반 토론 — 시연

제가 넣은 것 — 모아 둔 파일 하나 + 진로 후보 하나

**"이 파일을 근거로 찬반으로 나눠 토론해 줘 — A는 「맞다」, B는 「아니다」.
파일에 없는 말은 «짐작». 끝에 내가 가서 확인할 질문 셋."**

A — 「맞다」

결과는 — 지금 화면에서

B — 「아니다」

결과는 — 지금 화면에서

가서 확인할 질문 셋 1_____ 2_____ 3_____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판정은 — 제가 합니다

AI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— 질문 셋을 들고, 가서 확인합니다

집에서 돌려 나온 질문 셋 — 확인 결과 한 장 **둘째 칸**에

세션 1 · 파트 2

나에게로 정리 — 방금 본 것

모으기	흩어진 대화 · 메모 — 파일 하나로
묻기	대화방 하나 — 찬반 토론 · 면접관 · 10년 뒤의 나
규칙	근거는 그 파일에서만 · 없는 말은 «짐작»
판정	내가 한다 — 질문 셋을 들고 가서 확인

밖에서 모은 것을 — 나한테 비춰 본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 시간 그림 — 세 칸 다

①세계에서 «판이 바뀌었다» — 그 짝이 ③답사입니다 · 세 칸 다 켜졌습니다

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 — 한 장으로

답사 정리 — 한 장으로

① 직접

갈 수 있으면

보고 · 맡고 · 만지고 · 듣고 · 맛보고

매장 · 상권 · 행사
산업 현장 · 짧게 해 보기

답사 메모 → 포트폴리오

② 간접

못 가면

읽고 · 보고 · 묻고

리포트 · 보고서 · 기사 · 직업 정보
영상 · 선배 · 회사 · 마지막에 공고

확인 결과 한 장

③ 나에게로

다 모았으면

파일 하나 → 대화방 하나

찬반 토론 · 면접관
10년 뒤의 나

질문 셋 — 판정은 내가

남는 것 — 확인 결과 한 장 · 쉬고 나서 쓸 포트폴리오 재료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쉬었다 하겠습니다 — 10분

쉬고 나서 — 그 한 곳으로 포트폴리오

세션 2 파트 1

확인한 것을 서류로 →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기

그 서류가 — 포트폴리오 · 자소서 · 내 경쟁력으로

① 뽑는 쪽 셋

② 제 포폴

③ 일곱 칸

④ ①관찰 · ⑦한계

⑤ 지원 · 진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아까 본 답사 메모 — 한 장으로

답사 메모로 — 내 포트폴리오를 씁니다

① 물음 셋	② 걸으면서 한 줄씩	③ 그 자리 · 다녀와서 · 나중에
가기 전 — 내 짐작	눈에 들어오면 — 채팅에 한 줄	그 자리에선 — 짧게
가서 보니 — 실제는 ★	AI가 — 바로 같이 봄	다녀와서 — AI가 노트로 정리
그래서 — 한 줄	「답사 끝」 → 답사 노트	나중에 — 「그때 왜 그랬지」 한 줄

이 답사 메모가 — 지금부터 쓸 포트폴리오 재료입니다

포트폴리오 — 왜 만드냐면요

뽑는 쪽이 궁금한 건 셋 — 경력이 없으면 서류로

1. **우리 일이 무슨 일인지 아는가**
   「성장 가능성」 얘기는 — 여기서 끝
2. **작게라도 해 봤는가**
   계획만 있는 서류는 — 여기서 끝
3. **뽑았다가 안 될 위험이 낮은가**
   허풍 없이 — 본 것만 말하는가

경력자는 —
셋을 경력으로 보여 준다

경력이 없으면 —
셋을 서류로 보여 준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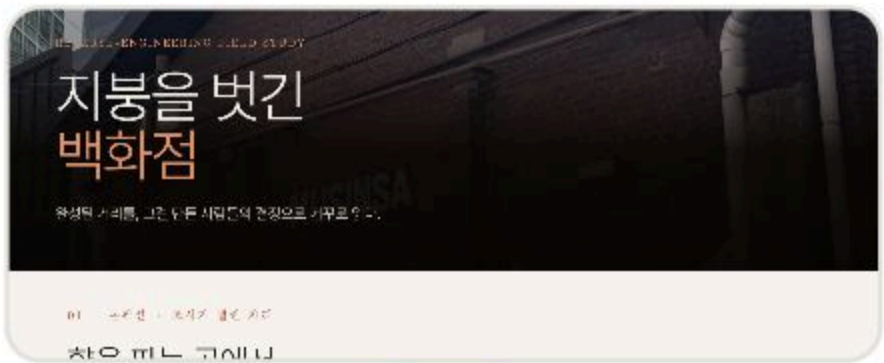
그 서류 = 포트폴리오

③이 제일 무섭습니다 — 뽑았는데 안 되면, 뽑자고 한 사람이 그 짐을 집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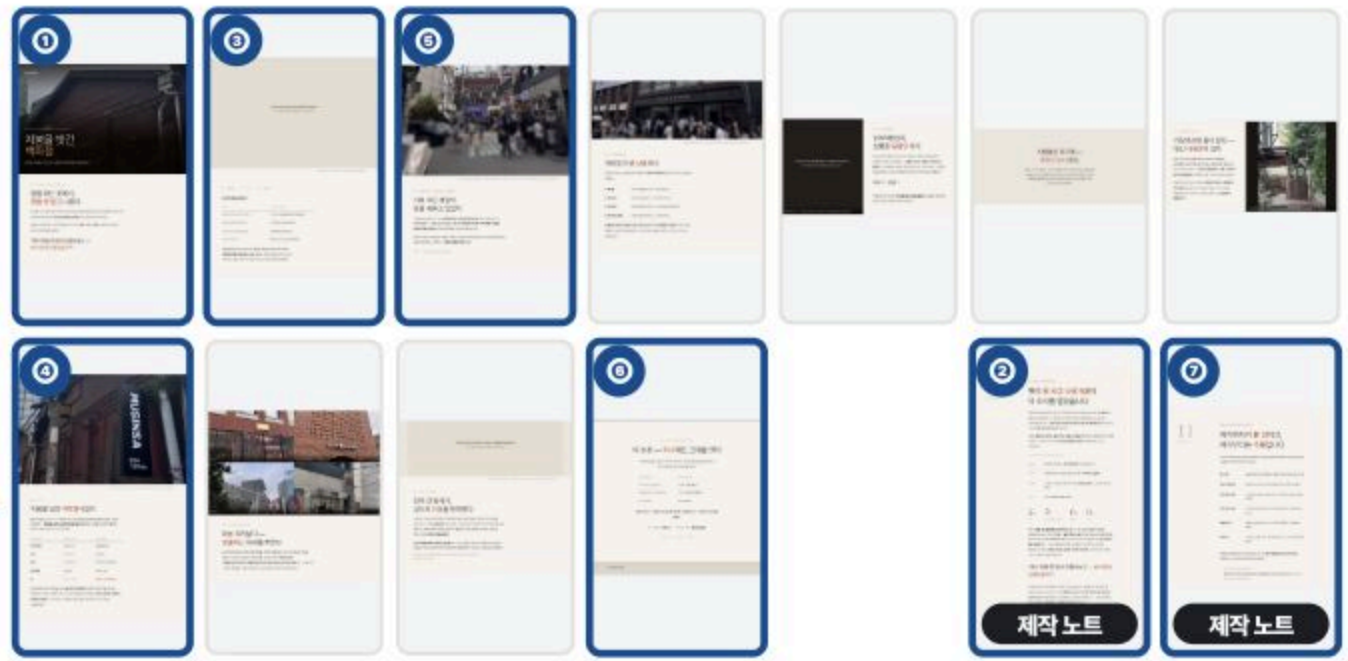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답사한 걸 — 순서만 바꾸면

이게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— 「지붕을 벗긴 백화점」



↑ 표지



안을 열면 — 장면 열하나

성수동 매장 5분 —
폰 메모 · 사진 몇 장

📱 휴대폰으로 — 전체 보기
이 문서, 그대로 드립니다

▭ 파란 테 = 일곱 칸 · 오늘 한 칸씩 봅니다
사진 든 포트폴리오 장면 열하나 + 제작 노트 두 쪽(② · ⑦)

사러 갔다가 — 못 사고 나온 적 있으세요?

향을 파는 곳에서 — 향을 하나도 못 맡았습니다

15:40 성수 연무장길 — 향이 먼저 왔습니다

- 15:42 👃 문을 열자 향이 훅 — 코가 아릴 정도
- 15:45 🧴 핸드워시를 직접 써 봄 — 아무 향도 안 남
- 15:46 📄 스태프가 시향지를 권함 · 3초 — 그대로 내려놓음
- 15:47 🚪 나옴 — 아무것도 사지 않음

몇 년째 쓰는 브랜드 —
다른 라인을 사러 들어갔다가
못 사고 나왔습니다

5분	2회
체류	시도
0회	0개
판별	구매

남은 건 질문 하나 — "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"

방금 그 매장 — 같은 장면, 두 문장

디자인이 아니라 각도 — 같은 매장, 똑같은 5분

이 각도는 회사가 주지 않습니다 — 진로가 있어야 각도가 생깁니다

💬 아무나 쓰는 문장

"분위기 좋았다"

거짓말은 아닙니다 — 누구나 씁니다

vs

👃 저 아니면 못 쓰는 문장

**"향으로 끌어들이려다 —
향을 못 맡게 만들었다"**

제 몸이 겪은 것 — 저만 씁니다

같은 매장 — 고른 자리가 다릅니다

각도 = **이걸 어느 방향에서 봤나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일곱 칸 — 하나씩



① 관찰

문제 발견



② 1차 데이터

남들한테 없는 것



③ 구조 분석

네 갈래



④ 상위 프레임

매장 하나 → 거리 전체



⑤ 근거 보강

열네 구간 · 줄 서기



⑥ 제안

재설계 —
다시 짓기



⑦ 한계 명시

제가 안 본 것

칸마다 — 제 포트폴리오 한 장면 보고 · 여러분 재료 한 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일곱 칸 — 1 / 7

① 관찰

성수 포트폴리오 01 — 논픽션 · 조사가 열린 자리



향을 파는 곳에서,
향을 못 맡고 나왔다

- 몇 년째 쓰는 브랜드 — 밖까지 퍼진 향에 끌려 들어감
- 실내 향이 너무 세서 — 시향지도 핸드워시도 판별 못 함
- 5분 만에 빈손으로 나옴

남은 건 질문 하나 — 「왜 이렇게 만들었을까?」

① 관찰

문제 발견 —
몸이 겪은 것만 · 결론 없이

여러분은 —

지난 시간 불편 한 줄
오늘 답사 메모

성수 포트폴리오 01

일곱 칸 — 2 / 7

② 1차 데이터

제작 노트 01 — 그날 폰 메모 원본

시각까지 그대로 — 다듬지 않는다



15:42 문을 열자 향이 훅 — 코가 아릴 정도

15:45 핸드워시를 직접 써 봄 — 아무 향도 안 남음

15:46 시향지 3초 — 그대로 내려놓음

15:47 나옴 — 아무것도 안 삼

5분 체류 · 2회 시도 · 0개 판별 · 0원 구매

② 1차 데이터

남들한테 없는 것 —
시각까지 그대로 · 다듬지 않는다

여러분은 —

CT 메모 · 답사 메모
원문 그대로

제작 노트 01 — 폰 메모 원본

일곱 칸 — 3 / 7

③ 구조 분석

성수 포트폴리오 01 이어서

본 것과 추측을 갈라 봤다

실물

■ 본 것	□ 그래서 추측한 것
매장 밖까지 향이 퍼진다	→ 지나가는 사람을 먼저 붙잡는다
입구부터 끝까지 향이 세다	→ 공간 전체가 하나의 무대다
스태프가 먼저 시향을 권한다	→ 응대에 절차가 짜여 있다
앉을 자리가 없다	→ 짧게 보고 나갈 손님을 전제한다

넷을 합치면 하나 — 「끌어당겨 빨리 내보내는」 쪽을 골랐다

③ 구조 분석

본 것 넷을 합치면 —
하나가 남는다

여러분은 —

지난 시간 —
뜯는 명령어로 뽑은 네 갈래

성수 포트폴리오 01 · 이어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일곱 칸 — 4 / 7

④ 상위 프레임

성수 포트폴리오 06 — 큰 틀

지붕을 벗긴 백화점이었다



백화점 — 위로 쌓음		성수 — 길에 펼침
층별로 손님 거르기	→	매장별로 손님 거르기
안내데스크	→	웨이팅 앱
1층 시향 코너	→	거리까지 새어 나온 향
발레파킹	→	차 없는 거리
라운지 · 정원(쉼)	→	없음 — 한 칸만 끊긴다

④ 상위 프레임

매장 하나에서 — 거리 전체로

「성수는 지붕 벗긴 백화점」

여러분은 —

오늘 읽은 산업

리포트 · 산업 읽기 세션

성수 포트폴리오 06

일곱 칸 — 5 / 7

⑤ 근거 보강

성수 포트폴리오 02 — 열네 구간 · 한 곳인가, 규칙인가

거의 모든 매장이 줄을 세우고 있었다



· 한 매장의 선택일까? — 외곽에서 중심 거리까지 열네 구간을 걸었다

· 방식만 달랐다 — 현장 줄 · 웨이팅 앱 · 사전 예약

· 방문객 한국인 8 : 외국인 2 · 대부분 10~20대

반복이 확인돼야 — 「구조」라고 부를 수 있다

⑤ 근거 보강

열네 구간 · 줄 서기 —
한 곳인지 규칙인지 받친다

여러분은 —

오늘 확인한 회사

공고 · 보고서 · IR · 선배

성수 포트폴리오 02

진짜 이상했던 것 — 왜 다들 줄을 설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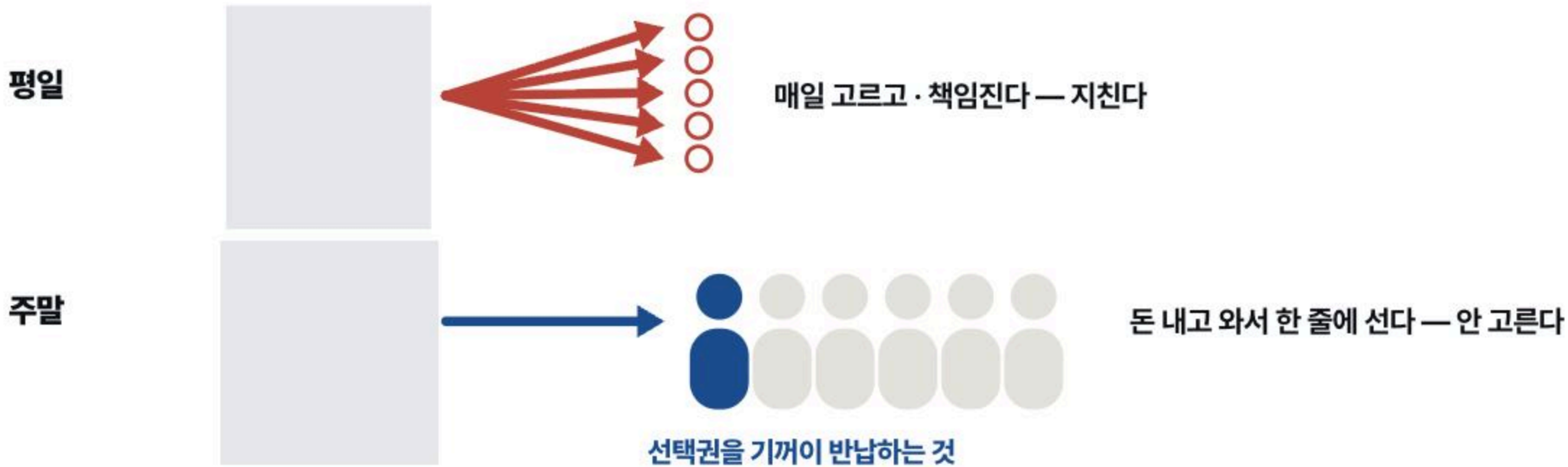
돈 내고 가는 건데 — 바로 옆엔 줄이 없는데



한 시간씩

하루 종일 하는 일과 — 주말에 하는 일

줄 서는 게 고통이 아니라, 반납하는 의식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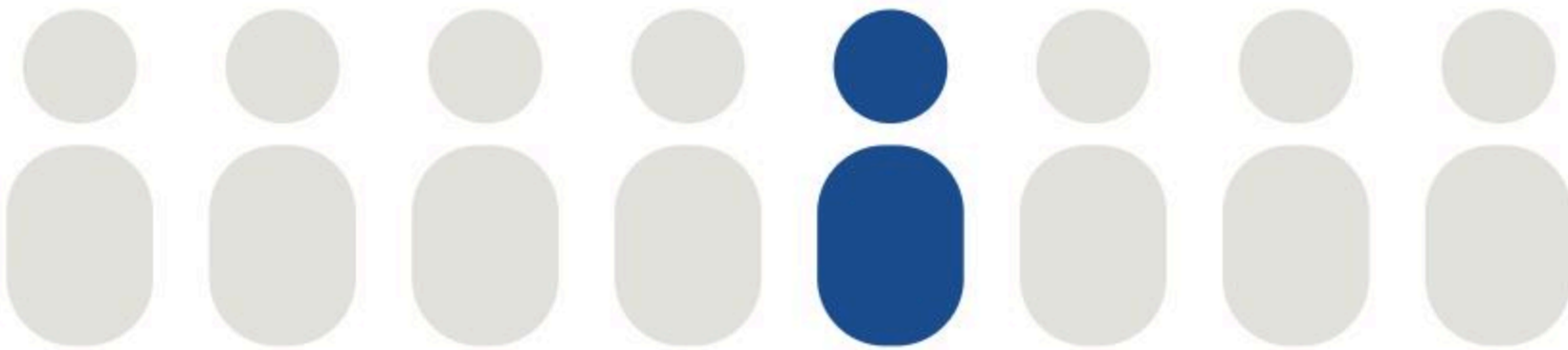


줄을 서면 — 순서가 정해주고, 큐레이터가 골라준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

방금 한 것 — 질문 몇 개를 더 던진 것뿐입니다



줄 선 사람들

그중 하나가 — 나

주말에 줄 서고 싶은 것 —
게을러서가 아닙니다

일곱 칸 — 6 / 7

⑥ 제안

성수 포트폴리오 — ⑥ 제안 · 재설계 · 「다이칸야마가 말하는, 성수의 다음」

끊긴 한 칸 «쉼»을 —
먼저 간 동네를 보고 다시 짓는다면

① 먼저 간 동네 — 도쿄 다이칸야마 · 저층 · 디자인 동네, 성수와 같은 길

② 츠타야 T-SITE — 책이 아니라 «머무는 경험»을 판다 = 끊긴 그 «쉼»

③ 성수의 다음(추론) — 임대료 오르고 · 날것 빠지고 · 큐레이션 촘촘

④ 일하는 자리도 옮겨간다 — 공간 기획 · 브랜드 경험 · 팝업 기획

제안은 아직 짐작 — 그래서 확인할 것까지 같이 적는다

⑥ 제안

끊긴 한 칸을 —
다시 짓기 — 재설계

여러분은 —

지난 시간 —
「나라면 이렇게 풀겠다」 한 줄

성수 포트폴리오 — 재설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일곱 칸 — 7 / 7

⑦ 한계 명시

제작 노트 11 — 여기서 멈춥니다

여기까지가 본 것이고, 여기부터는 추측입니다



1회 · 하루	→ 토요일 오후 한 번 — 평일은 다를 수 있다
「혼자」가 변수였나	→ 동행 손님은 확인 못 함
거리 데이터	→ 매장 수 · 머문 시간 — 숫자가 없다
수익 구조	→ 전부 바깥에서 짐작 — 장부를 본 게 아니다
의도였는지	→ 연출인지 관리 결과인지 — 단정 안 함

⑦ 한계 명시

여기까지가 본 것 —
여기부터는 추측

여러분은 —

확인 결과 한 장 —
「아직 확인할 것」 칸

제작 노트 11 — 여기서 멈춥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⑦ 한계 — 제가 확인 못 한 것

⑦ 한계 — 제가 안 본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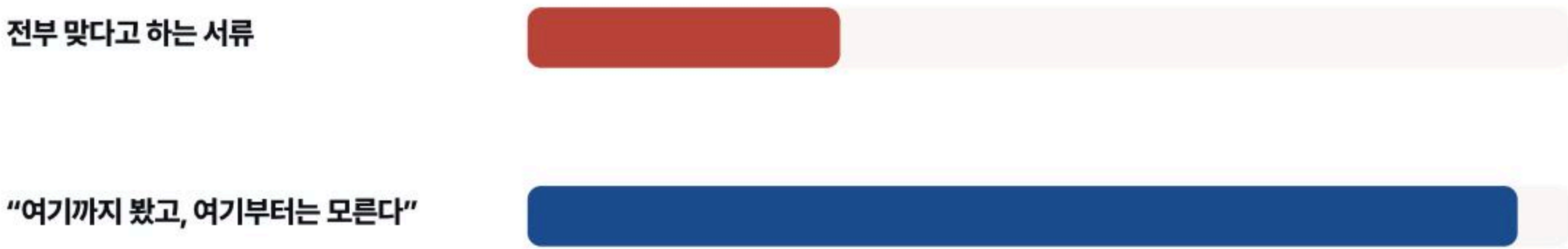
1. 토요일 오후 한 번 — 평일은 다를 수 있다
2. 동행 손님은 — 확인 못 했다
3. 수익 구조 — 장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짐작

이 세 줄이 — 신뢰를 올립니다

이걸 적으면 — **나머지는 확인한 것**이라는 뜻

⑦ 한계를 적으면 감점될까 봐 걱정되시죠

심사석에서 보면 — 반대입니다



심사석에서 — 훨씬 오래 읽혔습니다 · 셋째 물음 「위험이 낮은가」에 답하는 칸

현상을 읽었으면 — 그다음

그래서 — 뭘 했고, 어떻게 됐나

제 성수로 — 답사에서 본 것 → 그래서 나는

본 것
장소·상황에 따라 —
기다리는 사람·찾아온 사람에게
휴식도 콘텐츠가 된다
답사 메모에서

→

근데
성수에선 —
아무도 그걸 안 했다
포트폴리오 ④ — 쉼 한 칸이 끊김

→

그래서 나는
내 범위 안에서 —
휴식이 콘텐츠가 되는
방법을 고민했다
포트폴리오 ⑤ — 다시 짓기

포트폴리오 마지막 — 이 네 줄

한 것	결과	배운 것	보완점
실제로 한 행동	그래서 — 어떻게 됐나	그래서 안 것 — 한 줄	다음엔 — ⑦ 한계에서

이 네 줄은 — 답사를 거꾸로 한 바퀴 돌려 채웁니다 · 자소서에서 그대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성수는 — 한 예일 뿐

같은 일곱 칸 — 기업·사업·제품에도

기업

재료 — 채용공고·사업보고서

물음은 제 포트폴리오 마지막 표 그대로

- 어디에 사람을 뽑나
- 어느 자리를 새로 만들었나
- 누가 결정하나

사업·가게

예 — 키오스크를 왜 늘렸을까

지난 시간 거꾸로 읽기 — 물음 넷

- 누구를 위해
- 무엇을 포기했나
- 돈과 공간·어디서 돌아오나

제품

예 — 과자 값은 그대로, 양은 줄었다

지난 시간 불편 — 뿌리까지·재설계

- 바깥 사정·회사 안 사정
- 왜 이렇게 됐을까
- 나라면 어떻게 풀까

대상만 바뀝니다 — ①관찰부터 ⑦한계까지, 순서는 같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·로고·QR·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리고 여러분도 — 똑같아요

일곱 칸 재료 — 이미 다 있습니다

① 관찰	② 1차 데이터	③ 구조 분석	④ 상위 프레임	⑤ 근거 보강	⑥ 제안	⑦ 한계
불편 한 줄	CT · 답사 메모	네 갈래 결과	읽은 산업 — 오늘	확인한 것 — 오늘	이렇게 풀겠다 한 줄	확인 못 한 것 · 확인할 것
✓	✓	✓	✓	✓	✓	✓

제 건 ⑦까지 · 여러분 건 칸마다 한두 줄 — **출발점은 같습니다**

집에 가서 혼자 만들 때 — 이 순서로

포트폴리오 한 장 — 만드는 순서 넷

1

📦

재료 꺼내기

한 줄 정의 · 메모 · 네 갈래

읽은 산업 · 확인 결과 · 이렇게 풀겠다

2

✍️

①과 ⑦은 손으로

① 관찰 — 몸이 겪은 것만

⑦ 한계 — 못 본 것 세 줄

3

🤖

②~⑥은 AI로

재료 넣고 — 명령어 하나

②~⑥ 초안이 나온다

4

✂️

지어낸 말 빼기

회사 이름 빼도 말이 되면 ×

어디서 왔는지 못 짚으면 ×

막히면

재료가 한두 줄뿐이면 → 그 한두 줄로 — ①과 ⑦만

회사를 못 뜯어봤으면 → 제 재료(QR)로 — 순서만 익히기

AI 초안이 길면 → 「칸마다 두 문장」 한 번 더

오늘은 2까지 — 3 · 4는 집에서, 같은 순서로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럼 지금 — ①관찰 · ⑦한계만

① 관찰 · ⑦ 한계

① 관찰 — 두세 줄

「코가 아릴 정도로 향이 셌다」

「손을 씻어도 향이 안 남았다」

감정 단어는 빼고 · 결론 없이

⑦ 한계 — 세 줄

「한 번 갔으니 평일은 다를 수 있다」

「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」

「의도인지는 모른다」

못 본 걸 적는 게 — 제일 빠르다

나머지 ②~⑥은 집에서 — 다음 장 명령어로 초안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집에서 — 재료 넣고 AI한테

나머지 ②~⑥ — 명령어로 초안

💬집에서 — AI한테 그대로

복사

[① 관찰 — 내가 쓴 두세 줄] · [⑦ 한계 — 내가 쓴 세 줄] · [한 줄 정의]
[내 메모 원문] · [네 갈래 요약] · [읽은 산업] · [확인 결과 한 장] · [이렇게 풀겠다 한 줄]
이 재료로 포트폴리오 일곱 칸 초안을 써 줘 — ①과 ⑦은 내가 쓴 그대로, ②~⑥만.
재료에 없는 사실은 지어내지 말고 — 비면 「재료 없음」. 칸마다 두세 문장, 쉬운 말로.

나온 초안 — 이렇게 받습니다

①과 ⑦은	「재료 없음」 칸은	지어낸 말이 보이면
내가 쓴 그대로	그대로 비워 둡니다	조금 뒤 세 가지로 보고 뺍니다

오늘은 ①관찰 · ⑦한계까지 — 나머지는 집에서 이 명령어로 ·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포폴 한 장이 — 면접에서 하는 일

잘 만든 포폴은 — 면접을 절반 준비해 둔 것입니다

1



면접관이 ⑦ 한계 명시를 봅니다

"이건 왜 확인 안 하셨어요?"

2



내가 — 바로 답합니다

스스로 적어 둔 이유라 막히지 않습니다

3



면접관은 더 물어봅니다

다음 질문도 내 포폴에서 나옵니다

포폴은 **보여주고 끝나는 것**이 아니라 — **질문을 부르는 것**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마무리 — 포트폴리오 두 가지

지원 포트폴리오 · 진로 포트폴리오

지원 포트폴리오

한 회사를 확인한 기록 — 일곱 칸

받는 곳에 냅니다

디자인 — 거의 필수 · 개발 — 흔한 편

큰 회사 일부는 따로 전형 · 작은 회사는 첨부란

사무 · 영업 · 기획 공채 — 대개 따로 안 받음(제가 찾아본 바로는)

진로 포트폴리오

지난 시간 — 찾은 것 · 만든 것

안 받는 곳에서도 씁니다

자소서 — 증명할 수 있는 경험으로

면접 — 꺼내서 보여 주기

인사이트 — 넓히는 데도 씁니다

큰 회사 자소서가 이쪽으로 바뀌는 중(조선일보 2026-09-05)

오늘 채운 ①관찰 · ⑦한계 → 지원 쪽 · 지난 시간 찾은 것 · 만든 것 → 진로 쪽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2 · 파트 1

포트폴리오 정리 — 방금 본 것

뽑는 쪽 셋	일을 아는가 · 해 봤는가 · 위험이 낮은가
각도	같은 5분 — 고른 자리가 다르다
일곱 칸	답사한 걸 순서만 바꾸면 포폴
지원 · 진로	받는 곳엔 내고 — 안 받는 곳엔 자소서

이 칸들과 끝 네 줄이 — 바로 다음 자소서 재료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2 파트 2

자소서와 포트폴리오는 — 사실 하나입니다

답사를 거꾸로 한 바퀴 돌린 이야기 — 두 문장이면 됩니다

① 일을 아는 사람
② 거꾸로 한 바퀴
③ 두 문장
④ 엮기
⑤ 지운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지난 시간에 답 안 하고 넘긴 질문

그 사람이 아니어도 — 자기 일을 아는 사람

지난 시간에 남긴 질문

「나는 이 회사가 그려 놓은 —
그 사람인가?」

아니면 —

「왜 아닌데도 내가 맞는가?」

→

오늘의 답

공고 속 그 사람이 아니어도 —
그 일이 실제로 뭔지 알면 — 맞습니다

회사를 읽고 온 사람 = 경력자와 같은 안심

연차는 못 만들어도 — 안심은 만들 수 있다

회사는 — 자기 일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 네 줄 — 어떻게 채우나

이제 답사가 — 거꾸로 돕니다

처음엔 밖 → 안(① 직접 → ② 간접 → ③ 나에게로) · 이제는 안 → 밖

③ 나에게로

찾아내고

내가 느낀 불편 —
내 범위에서 손댈 수 있는 것

불편 찾기 — 내부 · 외부

② 간접

이해하고 · 점검하고

남들은 왜 그렇게 했나
내 짐작이 맞나 — 기록으로

역설계 — 「왜 이렇게 됐을까?」

① 직접

바꾸고 · 해결하고

내 자리에서 —
작게, 2주 해 본다

재설계 — 「나라면 어떻게 풀까?」

↻ 보완

보완하고

결과 · 배운 것 · 보완점
→ 다음 바퀴로

포트폴리오 끝 네 줄

찾아내고 → 이해하고 → 점검하고 → 바꾸고 → 해결하고 → 보완하고 — 한 바퀴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예로 한 바퀴 — 카페에서 일하는 스물일곱

한 바퀴 — 이렇게 돕니다

예 — 카페에서 일하는 스물일곱 · 후보 = 지역 식품 회사 영업 관리직(예시)

③ 나에게로 — 찾아내고

내가 느낀 불편
오후엔 디저트가 먼저 떨어지고
아침 것은 남아서 버린다

내 범위
알바인 내가 손댈 수 있는 건
발주 메모

② 간접 — 이해 · 점검

왜 이렇게 됐을까
발주를 하루 한 번 —
아침 기준으로 했다

점검 — 내 메모 2주치
품절은 3시 뒤에 몰린다

① 직접 — 바꾸고 · 해결

나라면 어떻게 풀까
점장님께 제안 —
발주를 오전 · 오후로 나눈다

작게
2주 해 봤다

↻ 보완하고

결과
오후 품절도 · 버리는 양도
줄었다(내가 센 것)

배운 것
재고는 시간대 기록으로 맞춘다

보완점
주말 · 날씨 · 행사는 따로

이 한 바퀴가 — 자소서 『그 일을 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』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「왜 여기인가」는 — 두 문장



"이 회사가 무엇을 앞세우는지 제가 봤고,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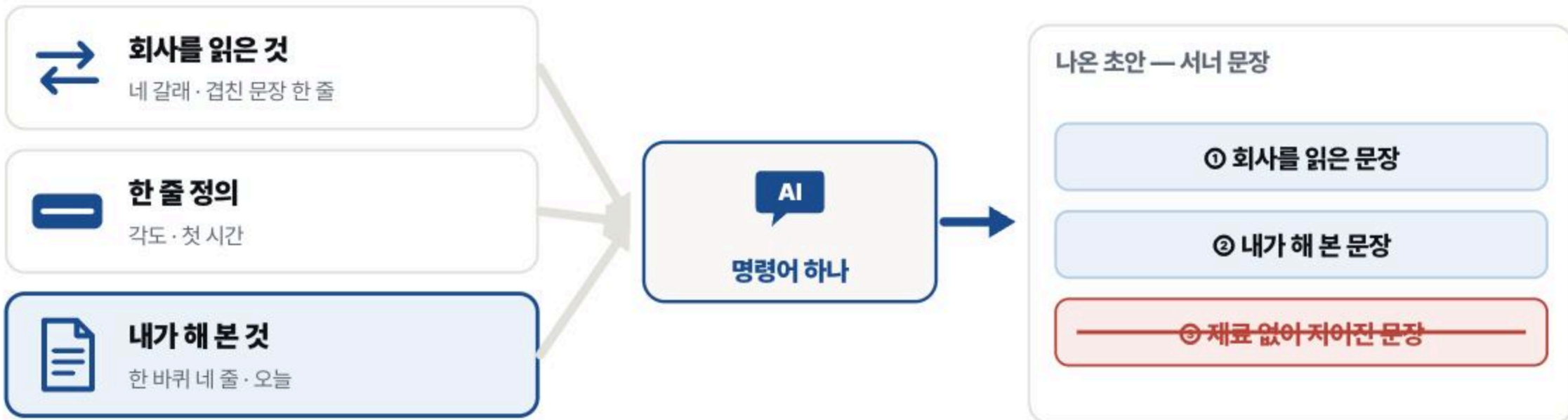
"그 일을 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"

이 두 문장이 곧 지원 동기 — 다른 줄에 서게 할 뿐, 보장은 아닙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첫 시간 · 지난 시간 · 오늘 — 재료가 모였습니다

자소서 엮기 — 재료 셋 + 명령어 하나



셋 다 — **포트폴리오 칸**에 들어간 재료

명령어 하나 — 화면에서 그대로

자소서 엮기 — 명령어 그대로 복사

AI한테 그대로 시켜 보세요

복사

내 한 줄 정의: [나는 ___할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]
이 회사를 읽은 것: [네 갈래 요약 · 공고와 겹친 문장 한 줄]
내가 해 본 것: [한 바퀴 네 줄 — 한 것 · 결과 · 배운 것 · 보완점]
이 셋을 엮어 「왜 여기인가」 지원 동기 문단을 써 줘 — 과장 없이, 서너 문장.

노란 부분 셋 — 어디서 가져오나

한 줄 정의
첫 시간 — 포트폴리오 각도

회사를 읽은 것
지난 시간 네 갈래 · 오늘 확인 결과

한 바퀴 네 줄
오늘 — 포트폴리오 끝 네 줄

각자 2분 — 막히면 제 재료로 같이 · 안 나와도 정상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나온 초안 — 이렇게 나옵니다

세 문장 — 이 중 하나는 뒤에서 지웁니다

나온 초안 — 예(카페에서 일하는 스물일곱)

1. 귀사가 공고에서 거래처 발주 확인과 재고 맞추기를 두 번씩 앞세운 걸 봤습니다
2. 저는 카페에서 품절 시간을 적어 발주를 오전 · 오후로 나눴고 — 2주 만에 품절도 버리는 양도 줄었습니다
3. 입사한다면 모든 거래처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인재가 되겠습니다



세 가지로 봅니다 — 셋째 문장을 지웁니다

하나라도 걸리면 — 지웁니다

1

회사 이름을 빼도

말이 되면 — 걸립니다

2

숫자나 장면이 있나

없으면 — 걸립니다

3

어디서 왔는지

못 짚으면 — 걸립니다

> "최고의 인재가 되겠습니다" — 셋 다 걸립니다 → **지웁니다**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고치고 나면 — 이렇게 남습니다

짧아졌는데 — 더 세졌습니다

고친 뒤 — 두 문장

1. 귀사가 공고에서 거래처 발주 확인과 재고 맞추기를 두 번씩 앞세운 걸 봤습니다 ✓
2. 저는 카페에서 품절 시간을 적어 발주를 오전 · 오후로 나눴고 — 2주 만에 품절도 버리는 양도 줄었습니다 ✓
3. ~~입사한다면 모든 거래처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인재가 되겠습니다~~

> AI가 써 준 것 그대로 내지 마세요 — **설명 못 할 문장은 뺍니다**

세션 2 · 파트 2

자소서 정리 — 방금 본 것

뽑히는 사람	자기 일을 아는 사람 — 경력자와 같은 안심
거꾸로 한 바퀴	나에게로 → 간접 → 직접 — 네 줄이 나온다
두 문장	무엇을 앞세우는지 봤고 · 그 일을 이렇게 해 봤다

설명 못 할 문장은 뺍니다 — 그게 고치기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3 파트 1

안 됐을 때 — 정보가 늘어난 것

떨어진 다음 날 아침 · 이유는 모른다 · 규칙 둘

① 다음 날 아침

② 이유는 모른다

③ 규칙 둘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떨어진 뒤 — 제 얘기부터

떨어진 다음 날 아침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



답을 찾은 게 아니라 — **저를 재판하고** 있었습니다

떨어진 이유는 — 우리가 모릅니다

알아내려 하지 마세요 — 알 수도 없고, 알아도 못 바꿉니다

1

이유는 모른다

자리가 원래 하나였을 수도
그날 뽑는 쪽 사정이 있었을 수도

2

뽑는 자리에서 보니 — 늘 있었다

지원자는 알 길이 없다
알아도 못 바꾼다

3

정보가 늘어난 것

틀린 게 아니라 — 다시 잴 때라는 신호
그러니 — 고쳐도 됩니다

> 자리가 원래 하나였을 수도, 그날 뽑는 쪽 사정이 있었을 수도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래서 규칙을 — «미리» 정합니다

「다섯 번」을 세려면 — 어디서 끊겼는지 적어 둡니다

왜 미리인가

그 순간에는 —
규칙만 따르면 된다

판단할 일이 없다
아침이 되면 또 시작되니까

하나 **결과는 정보 · 심증은 증거가 아니다**

이유는 지어내지 않는다

둘 **「내가 부족해서」는 — 가설로만**

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섯 번 막혔을 때만 후보로

이유를 모르는 것과 **자책을 안 하는 것**은 다른 일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규칙 둘의 「다섯 번」 — 적어 둬야 셀 수 있습니다

지원 로그 — 세 줄이면 됩니다

이 세 줄이 있어야 — 같은 자리에서 몇 번 막혔는지 압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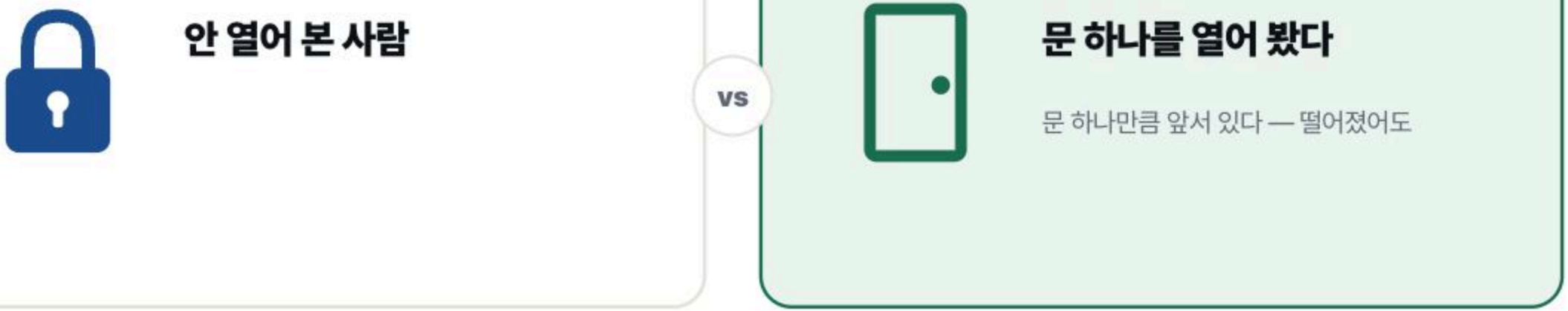


거창한 양식 필요 없습니다 — **진짜로 메모장 세 줄**입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두 가지만 더

떨어진 건 — 문 하나를 «열어 봤다»는 뜻입니다



세션 3 · 파트 1

안 됐을 때 정리 — 방금 본 것

이유는 모른다	알 수도 없고 — 알아도 못 바꾼다
규칙 둘 — 미리	결과는 정보 · 「부족해서」는 가설로만
세 줄	회사·직무 · 어디서 끊겼나 · 떠오른 것

틀린 게 아니라 — 정보가 늘어난 것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3 파트 2

석 달 뒤 — 고치는 법

날짜부터 정합니다 · 다시 재는 시점 셋

① 셀프 점검표

② 시점 셋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래서 — 날짜부터 정합니다

석 달 뒤에 여는 종이 — 여섯 칸

날짜를 안 정해 두면 — 이 종이는 대개 안 열게 됩니다

석 달 뒤에 여는 종이

여는 날 — ___

1. 「이건 할 만했다」 싶었던 순간 셋
2. 내 한 줄 정의와 맞나 — 맞다 · 반쯤 · 아니다
3. 아니면 어디가 다른지 — 한 줄
4. 확인해 본 후보 · 확인하고 뺀 후보
5. 지원했다면 — 어디서 막혔는지
6. 그리고 — 문장을 다시 쓴다

지금 할 건 — 둘뿐

- **제목 여섯 줄 —** 메모장에
- **석 달 뒤 날짜 —** 폰 달력 + 알림

④번 칸,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

확인하고 뺀 후보도 — 적어 둡니다

× 안 적으면

빼 후보 둘 —
아무 데도 없음

「석 달 동안 뭐 했지?」

→ 통째로 허탕처럼 기억

vs

✓ ④번 칸에 적으면

1 확인해 본 후보 둘

2 확인하고 뺀 후보 둘

= 「아니다」를 두 번 알아낸 것

빼 후보도 — 허탕이 아니라 「아니다」를 알아낸 것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매일이 아니라 — 셋 중 하나가 오면

다시 재는 시점 — 셋

1



기록이 스무 줄쯤
모였을 때

2



같은 자리에서
다섯 번 막혔을 때

3



산업 얘기가
달라진 게 보일 때

📥 기록 통째로 — 겹치는 것 찾기 → 🏢 그 회사 — 밖에서 한 번 더 → ✏️ 틀린 칸 하나만 고쳐 다시

다시 잴 때 — **새로 배울 건 없습니다** · 도구는 안 늘어납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션 3 파트 3

강의 전반 정리 — 세 번 동안 만든 것

세 메모 · 원 세 개 · 비서 · 첫 시간 약속 · 이런 분께 · 신조

① 세 메모
② 원 세 개
③ 비서
④ 약속
⑤ 이런 분께
⑥ 신조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세 메모로 훑어봤고 — 얻으신 것

도구는 세 개뿐 — CT 메모 · 불편 메모 · 답사 메모

첫 시간 — 일상적인 관찰

CT 메모

→ 한 줄 정의 한 문장

지난 시간 — 관심 포인트

불편 메모

→ 네 갈래 · 진로 후보 3~5

오늘 — 실제로 증명

답사 메모

→ 확인 결과 한 장 · 포폴 ①관찰 · ⑦한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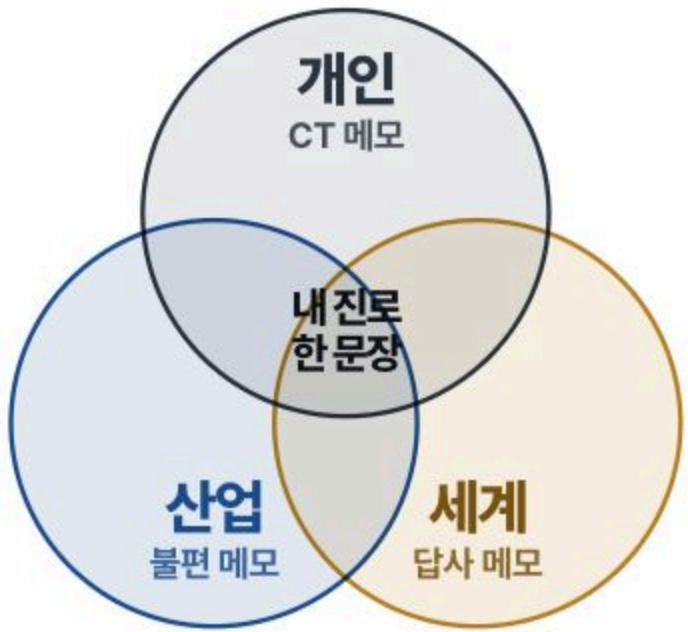
→ 지원 동기 문단 · 셀프 점검표

관찰 → 관심 포인트 → 증명 — 세 메모로 훑어봤고, 새 도구는 없었습니다

명령어는 전부 강의 끝나고 단톡방에 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그림으로 보면 — 이겁니다



- **개인** 내가 몰입하는 조건
- **산업** 그 일이 어떤 문제를 푸는지
- **세계**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

개인 채우고, **산업** 채우고, **세계** 채우고 — 오늘 셋을 겹쳤습니다
첫 시간의 물음표 — **내 진로 한 문장**

첫 시간에 비서 얘기로 시작했습니다

세 번에 걸쳐 — 비서한테 줄 것을 만드신 겁니다

세 번에 걸쳐 — 알려 준 것

나
첫 시간 — CT 메모

회사
지난 시간 — 불편 메모

확인한 것
오늘 — 답사 메모

→

AI

첫 시간엔 —
막 출근한 비서

이제 —
여러분을 압니다

나 · 회사 · 확인한 것 — 세 번에 걸쳐 알려 줬으니까

같은 AI인데 남과 다른 답 — **여러분만 가진 재료**가 들어갔으니까

첫 시간 약속 — 지켰는지 봅니다

고치는 법을 알면 — 정하는 게 안 어렵습니다

첫 시간 약속

🤝

「3회 만에 진로를
정해 드린다고는
말 안 하겠다」

→

대신 드린 것

✍️ **정하는 법**
한 줄 정의 → 진로 후보 → 가서 확인

🔧 **고치는 법**
정했는데 아니었을 때 — 석 달 뒤 다시 잰다

정한다 → 해 본다 → 다시 잰다 → 고친다 ↻

틀려도 고칠 수 있으면 — 「한 번에」가 필요 없습니다

처음에 말씀드린 — 이런 분께

이런 분께 —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

진로 — 이렇게

후보가 맞는지는 —

가서 확인합니다

직접 · 간접 · 나에게로 → 확인 결과 한 장

다시 시작 — 이렇게

뽑는 쪽이 궁금한 건 셋 —

경력 대신 — 서류로

포트폴리오 ①관찰 · ⑦한계 — 오늘 두 칸

경험 — 이렇게

회사가 뽑는 건 —

자기 일을 아는 사람

해 온 일 → 여기서 할 일 — 두 문장

셋 다 — 떨어져도 **규칙 둘 · 석 달 뒤 셀프 점검표**로 계속 갑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



2년
떨어졌고



지방 중소기업에서
시작했고



이 방법을
알게 되었을 뿐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우리는 모두 해결책을 알고 있다.
다만 머릿속에서
그걸 끄집어내지 못할 뿐이다

세 번 동안 우리가 한 게 그것입니다 — **꺼내는 연습**

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해결책을 모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문장과 답을 세상에 내놓는 그 순간을 응원합니다

공개판 — 남의 그림 · 로고 · QR · 얼굴은 가렸습니다

강의를 마치며 —

나가시기 전에 — 만족도 조사

강의 후 — 만족도 조사

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세요

고맙습니다

오늘 밤 한 줄부터 — 세 번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

오픈채팅 — 26.9 마포센터강의